

《新撰字鏡》 註釋 體例 研究*

--한자 字形屬性情報를 중심으로

김영경**

〈 목 차 〉

1. 들어가며
2. 표제자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3. 상호 연관된 표제자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4. 주석을 통한 자형 속성 관계 규명
5. 나오며

1. 들어가며

《新撰字鏡》의 가장 큰 특징은 字書와 類書, 韻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字樣書와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선 標題字에 여러 가지 이체자형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은 《干祿字書》를 비롯한 자양서의 모습과 흡사하다. 특히 標題字에 여러 이체자형을 나열할 때 되도록 널리 쓰이는 자형을 위에 배치하고 그 아래 正字를 배치하는 방식은 《干祿字書》와는 다르나, 당시에 통용되던 자형을 먼저 배열하고 그것의 正字를 밝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인접한 標題字끼리 긴밀한 자형관계를 가질 때에는 正字를 위에 배치하고 俗字를 그 아래에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다시 古文을 그 밑에 두었다. 따라서 필자는 《新撰字鏡》의 標題字를 배열하는 방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A00040)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전임연구원(ling72@hanmail.net)

식과 배열순서, 標題字 간의 상호연관성에 주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1)자양서와 필적할 만큼 여러 가지 이체자를 나열해 놓고, 그들의 이체 관계를 기술하는 체례와 (2)인접한 標題字끼리 긴밀한 자형 관계를 가져, 각자의 독립영역을 가능한 자유롭게 넘나들며 그간의 이체관계를 설명하려 한 체례를 독립시켜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방대하며, 학술적 연구가치가 가장 높은, (3)주석을 통해 標題字나 주석 중에서 언급한 모 글자의 異體字, 正字, 俗字, 古字, 今字 등과 같은 세밀한 속성까지 기술하는 체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標題字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新撰字鏡》을 처음 펼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러 가지 이체자형을 일렬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런 방식은 한 標題字 아래 주석이 달리고 그 주석 안에서 여러 가지 자형 정보와 다른 글자와의 상호관계를 전달하는 다른 자서와는 사뭇 다른 형태이다. 《新撰字鏡》의 이러한 특징은 한자의 이체자 자료를 상당히 많이 품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아주 크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이체자를 標題字로 삼아 그 이체관계를 설명하는 체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形/形作

이러한 체례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標題字로 나열한 다음,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나열한 이체자 만큼의 이체자형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상황에 따라 標題字의 수를 표시하고 그 뒤에 ‘形’이나 ‘形作’을 붙인다.

2.1.1 標題字+글자수+形

茝, 二形. 七矢反. 上. 生山, 其味甚苦, 人能食尔, 古多. 又云加乃尔介. 《新撰字鏡 卷7 艸部》

‘芪’자는 ‘芪’의 俗字體이다. 《新撰字鏡》은 ‘芪’와 ‘芪’를 자형이 다르지만 동일한 글자로 보고 있다. ‘芪’는 《唐韻》, 《正韻》에 따르면 巨와 支, 渠와 宜의 반절로 其로 발음되며, 황기 즉 약초이름(《唐韻》巨支切 《正韻》渠宜切, 并音其. 黃芪, 藥名)¹⁾한편 《佩觿·卷下42》의 풀이에 따르면 ‘茂芪芪芪’의 맨 윗 글자는 莫과 候의 반절이며, 풀이 무성함을 이른다. 두 번째 글자는 徒와 再의 반절로 풀의 모습을 가리킨다. 세 번째 글자는 扶와 父의 반절로 풀의 모습을 가리킨다. 네 번째 글자는 防과 曰의 반절로 桴楫을 이른다.(茂芪芪芪上莫候翻艸盛, 二徒再翻艸兒, 三扶父翻艸兒, 四防曰翻, 桴楫)²⁾고 하였다. 즉 ‘芪’는 ‘茂’자의 이체자이지 ‘芪’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다. 그렇다면 왜 《新撰字鏡》에서는 이 두 글자를 이체자로 보았을까? 앞서 《佩觿》의 해설에서도 말했듯 ‘芪’는 ‘茂’와 ‘芪’의 이체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訛變字라고 할 수 있다. 《新撰字鏡》의 ‘芪’자에서 ‘氏’의 ‘丿’과 ‘㇏’이 ‘亅’변으로 변하고 나머지 획은 ‘代’자의 ‘弋’이 된 것이다. 이처럼 部件의 재조합을 통한 訛變은 俗字 생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新撰字鏡》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생성된 ‘芪’자가 원래의 쓰임이 아닌 ‘芪’의 이체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용자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2.1.2 標題字+글자수+形作

澼澼澼, 三形作. 正所牛反. 平. 澼澼, 漸米聲. 借所丸反. 漬汰也. 小便也. 麵也. 《新撰字鏡 卷6 水部》

《新撰字鏡》은 ‘澼’·‘澼’·‘澼’를 이체관계로 보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글자를 구성하는 ‘𣎵’·‘𣎵’·‘𣎵’의 자형 관계를 분석해

1)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211쪽.

2)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448.htm>에서 재인용.

야 한다. 먼저 ‘窆’자는 《說文》에서는 ‘늪은이다. 又와 災로 구성되었다(老也. 从又从災)’고 하였다. ‘窆’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𠂔(前4.29.1)로 손에 불을 들고 구덩이 안을 비추는 모습이다. 《康熙字典》에도 ‘窆’자를 고문 ‘叟’자라고 하였다³⁾.

‘叟’자는 《集韻》·《韻會》·《正韻》에 따르면 ‘疎와 鳩의 반절로搜음(《集韻》《韻會》《正韻》疎鳩切, 音搜)’이며, 叟叟로 쓰여 쌀 씻는 소리를 형용한다. 《集韻》에 따르면 ‘潏로 쓰기도 하며, 洩로 통용된다(叟叟, 淅米聲. 《詩·大雅》釋之叟叟, 蒸之浮浮, 《註》釋, 淅米也. 叟叟, 聲也. 《集韻》或作潏, 通作洩)’고 하였다. 《新撰字鏡》의 의미풀이 중 ‘潏潏’를 쌀 씻는 소리라고 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즉 《新撰字鏡》은 ‘潏潏’를 ‘洩洩’와 동일한 글자, 즉 이체자라고 보았다. 또한 《康熙字典》에 따르면 ‘潏’자는 ‘小便을 뜻하기도 하며, 洩자의 이체자’라고 하였다.⁴⁾ 이 역시 《新撰字鏡》의 풀이와도 일치하며, 이러한 종종의 연관관계를 통해 ‘洩’와 ‘潏’는 ‘叟’의 고문 ‘窆’를 성부로 하는 이체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자형인 ‘潏’는 와변으로 생긴 속체자로, 《新撰字鏡》을 비롯한 필사본 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자형이다. 俗字에서는 ‘叟’나 ‘冎’자에서 나타나는 ‘臼’를 ‘臼’이나 ‘旧’로 간주하고, ‘冎’자를 ‘冎’자와 동일하게 본다. ‘潏’자는 원래 ‘臼’와 ‘丨’으로 된 자형을 ‘旧’로 줄여 써야 俗字의 자형 규율에 맞지만, 이 경우에는 ‘冎’자의 訛變字形인 ‘伯’자로 변형되어 ‘潏’의 자형을 가지게 되었다.

2.2 同/形同/同作/形同作

《新撰字鏡》의 주석에서는 ‘同’·‘形同’·‘同作’·‘形同作’ 등의 용어로 나

3) 《唐韻》《集韻》并古文叟字.(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23쪽.)

4) 《廣韻》所鳩切《集韻》疎鳩切, 音搜. 小便也. 《晉語》少潏於豕牢, 而得文王.《註》少, 小便, 言其易也. 或作所遭切, 音騷. 亦作洩.(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713쪽.)

열린 다수의 이체자가 같은 글자라는 자형 정보를 전달한다. 구체적인 체례는 아래와 같다.

2.2.1 標題字+同

글자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일련의 이체자가 같은 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형식이다.

𠵼^{昌悅}, 同. 昌悅反. 又哲音也. 《新撰字鏡 卷2 口部》

‘𠵼’과 ‘名’은 각각 ‘嚼’과 ‘齧’의 俗字이다. 《篇海》에 따르면 ‘𠵼’자는 ‘昌’과 ‘悅’의 반절로, ‘口不正’이라는 뜻이고⁵⁾, ‘齧’은 ‘𠵼’자와 음이 같으며, ‘마시다’, ‘많이 마시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⁶⁾. 표면적인 의미 풀이로만 볼 때는 각기 다른 의미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글자의 자형구조를 파악해 보면 유사한 部件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의 자형구조 분석 관점에서 보면 ‘嚼’은 ‘口’와 ‘𠵼’, ‘酉’를, ‘齧’은 ‘𠵼’, ‘酉’와 ‘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문자 자형을 통해 보면 ‘齧’은 사람이 술독에 입을 대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𠵼(菁4·1)자가 변화한 ‘齧’의 생략형과 음을 나타내는 ‘𠵼’이 결합된 글자이다.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을 본 뜬 ‘欠’자로 ‘口’를 대체했을 뿐, ‘嚼’자에도 ‘齧’자를 구성하는 ‘술독(酉)’과 음을 나타내는 ‘𠵼’의 자소가 남아있으므로 의미 부의 교환을 통한 이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2.2.2 標題字+글자수+字同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5) 《篇海》昌悅切, 音啜. 口不正也.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176쪽.)

6) 《廣韻》昌悅切《集韻》《韻會》姝悅切, 音啜. 《說文》飲也. 《禮·曲禮》毋齧醢. 《楚辭·漁父》餽其糟而齧其醢. 又大飲也. 《禮·曲禮》毋流齧. 《鄭註》流齧, 大齧, 嫌欲疾也. 《枚乘·七發》小飴大齧, 如湯沃雪.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636쪽.)

형식이다.

瘞瘞, 二字同. 其郢反. 項強病也. 《新撰字鏡》卷3 疒部》

‘瘞’은 ‘瘞’자의 간화 이체자이다. ‘瘞’을 이루는 字素 ‘조’은 《新撰字鏡》뿐만 아니라 위진 남북조 시기 碑刻문자를 비롯하여, 《一切經音義》 등 다른 俗字 문헌 자료에도 상당히 자주 보이며, 《新撰字鏡》에도 이미 ‘莖’, ‘涇’, ‘勁’ 등 ‘조’을 포함한 자형들이 다수 나온다.

2.2.3 標題字+글자수+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簍簍, 三同. 楚尤反. 平. 簍酒. 或作𦵏. 《新撰字鏡》卷8 竹部》

‘簍’, ‘𦵏’ 두 글자는 모두 ‘簍’의 俗字이다. 俗字에서는 ‘𦵏’자를 ‘𦵏’, ‘𦵏’, ‘𦵏’, ‘𦵏’ 등으로 줄여 쓴다. 《字彙補》에 따르면 ‘簍’는 ‘初’와 ‘鳩’의 반절로 ‘鄒’음이다. 술이다. ‘簍’와 같다(初鳩切, 音鄒. 酒也. 同簍).⁷⁾ 즉 ‘簍’는 ‘𦵏’의 자형이 축약되어 생성된 省體 俗字이며, ‘簍’자와 이체관계가 있다. 한편 ‘𦵏’ 자형은 약간 독특하다. 이 자형은 《新撰字鏡》의 저본 중 하나인 《一切經音義》에서도 나타나는 자형으로 ‘크’가 두 번 반복되는 ‘𦵏’자형을 기본으로, 위의 部件이 ‘𦵏’로 대체되어 생긴 이체자형이다. 《新撰字鏡》에서는 이 자형과 ‘𦵏’이 공존한다.

2.2.4 標題字+글자수+形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7) 吳任臣 著, 《字彙補》(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年), 155쪽.

柒漆柒𣎵, 四形同. 七音. 木汁也. 林也. 水也. 《新撰字鏡 卷6 水部》

위의 네 한자는 모두 ‘漆’자의 이체자형이다. ‘漆’은 원래 물 이름이었으나 ‘漆’자로 가차되어 통용되었다⁸⁾. ‘柒’은 ‘漆’의 俗字이며⁹⁾, ‘漆’은 ‘漆’의 ‘木’ 部件이 ‘求’의 속자체로, ‘水’部件이 ‘小’자로 바뀌어 나타난 이체자이다. 《偏類碑別字》에 수록된 〈唐楊氏合葬殘墓誌〉의 ‘漆’자와《新撰字鏡》의 ‘漆’자를 보면 자형상 유사한 점이 많다.¹⁰⁾ ‘柒’ 자형은 중국의 俗字에는 없는 자형이라서 그 연원을 밝히기가 조금 까다롭다. 《新撰字鏡》의 이체자에는 인접한 部件의 병합을 통한 변형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바, 필자의 생각으로는 ‘漆’자의 ‘漆’部件이, ‘木’과 그 아래의 ‘人’部件이 병합되어 ‘求’ 部件으로 바뀌고, ‘水’의 필획이 서로 연결되어 ‘木’으로 변형되었다고 추측해 본다. 마지막으로 ‘𣎵’ 역시 ‘漆’의 이체자형이다. 이 자형은 《古文四聲韻·入聲·質韻》에 수록된 ‘𣎵’자와 관계가 깊다. ‘漆’의 고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漆’과 ‘坐(𡵓)’는 서로 대체되기도 하고¹¹⁾, 《新撰字鏡》에서 ‘𣎵’자를 ‘𣎵’로 쓰는 등, ‘𣎵’을 ‘久’으로 변형한 자형이 자주 나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𣎵’자나 ‘𣎵’의 오른쪽 部件 ‘𣎵’이 ‘久’로 변형되어 생성된 이체자임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2.2.5 標題字+同作

8) 搃[漆]《唐韻》親吉切《集韻》《韻會》《正韻》戚悉切. 音七. 水名.《說文》水出右扶風杜陵岐山.....又木汁可槩物. 《書·禹貢》厥貢漆絲. 又物之黑者曰漆. 《周禮·春官》巾車漆車藩蔽. 《註》漆車, 黑車也.....又《集韻》七四切, 音次. 與柒同. 以漆塗器也. 本作漆, 亦作柒.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723쪽.

9) 柒, 《廣韻》俗漆字. 《開山圖》長安西有渠, 謂之柒渠. 又木名. 《山海經》剛山多柒木. 又《集韻》戚悉切. 義同.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563쪽.

10) 《偏類碑別字·水部·漆字》引用〈唐楊氏合葬殘墓誌〉(中華民國 教育部 教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2311.htm>)에서 재인용.

11) 《玉篇·水部·漆字》: 漉, 古文. 《字彙補·水部》: 𣎵, 古文漆字. 위와 같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𤝵𤝵, 同作. 許救居久二反. 加久又久作志. 《新撰字鏡》卷2 口部》

‘𤝵’는 ‘口’와 ‘鼻’로 이루어진 ‘嗅’의 俗字이다. ‘鼻’는《玉篇》에서 ‘嗅’의 俗字라고 했는데, 《偏類碑別字》에서 인용한 〈魏冀州刺史元壽安墓誌〉의 ‘𤝵’를 보면 ‘𤝵’의 ‘鼻’자와 자형이 같다. 한편 ‘𤝵’는 ‘口’와 ‘嗅’의 이체자형인 ‘𤝵’로 구성되었다. 《說文》의 ‘嗅’를 ‘김승이 도망가면 냄새로 그 흔적을 아는 것이 犬(嗅, 禽走, 嗅而知其迹者, 犬也. 从犬从自)’이라고 한 풀이나, 𤝵(鐵196·3), 𤝵(睡虎秦簡) 같은 고문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嗅’는 ‘自’와 ‘犬’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犬’자는 후에 ‘友’ 자형으로 많이 변한다. 그 예로 ‘突’자 같은 글자는 𤝵(古陶), 𤝵, 𤝵(睡虎秦簡) 등의 고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穴’과 ‘犬’으로 구성되었지만 예번 이후 ‘犬’ 部件이 ‘友’이나 ‘友’ 등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¹²⁾ 《新撰字鏡》의 ‘𤝵’ 자형은 ‘自’와 ‘犬’의 俗字인 ‘友’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 자형은 ‘友’이나 ‘友’의 자형과 유사하므로, 《新撰字鏡》에서 ‘友’과 ‘犬’ 字符의 俗字 형태와 항상 혼용되어 왔으므로¹³⁾, ‘𤝵’자형도 ‘友’의 변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嗅’의 이체자이며, ‘𤝵’ 역시 ‘嗅’의 이체자로 볼 수 있다.

2.2.6 標題字+글자수+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12) 《隸辨》이 〈張納功德敘〉에서 𤝵 인용, 𤝵(《龍龕手鏡》), 《偏類碑別字》가 〈魏敬史君碑〉에서 𤝵 인용, (中華民國 教育部 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2958.htm>)에서 재인용.

13) 《新撰字鏡》에 나오는 擇는 淚의 이체자이다. 擇의 友는 犬으로 변했고, 《新撰字鏡》에서는 笑의 犬을 犬으로 바꾸어 笑로 쓴다.

筭筭筭, 三同作, 蘇換反. 籌矢也. 數也. 計也. 《新撰字鏡 卷8 竹部》

《新撰字鏡》의 해설에 따르면 이 세 글자는 모두 같은 글자의 다른 이체자형이다. 먼저 ‘筭’자를 보자. 《說文》에서 따르면 ‘筭’은 수를 셀 때 쓰던 산가지를 말한다.¹⁴⁾ 《說文·竹部》에서는 이 글자와 유사한 음과 뜻을 가진 ‘算’자가 나오는데, 그 풀이를 보면 ‘算, 셈하다. 竹과 具를 따르며 筭으로 읽는다. ‘蘇’와 ‘管’의 반절(算, 數也. 从竹从具. 讀若筭. 蘇管切)’이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이에 ‘竹部를 따름은 산가지로 셈하기 때문이며, 具를 따르는 것은 수를 갖추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筭’과 ‘算’은 의미와 음도 ‘蘇貫切’로 똑같은 글자로, 서로 통용되어 왔다.¹⁵⁾ 이러한 연유로 ‘筭’은 ‘筭’과 ‘算’ 두 글자 모두의 이체자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玉篇》에서는 “筭, 蘇亂切, 計筭也. 數也.” 또 “筭, 同上. 亦竹器也.”라고 하였고,¹⁶⁾ 《金石文字辨異》에서는 이 글자를 ‘算’의 이체자로 보았다.¹⁷⁾ 따라서 ‘筭’은 ‘筭’과 이체자 관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筭’ 자형은 《新撰字鏡》에서 나타난 독특한 자형으로 그 연원을 밝히기 쉽지 않지만, 漢〈張遷碑〉에 나오는 ‘筭’의 이체자인 ‘𣎵’과 자형 상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¹⁸⁾ ‘筭’자의 ‘𣎵’ 部件과 ‘𣎵’의 ‘𣎵’은 ‘𣎵’의 아랫부분이 ‘开’형태이고, ‘𣎵’은 ‘𣎵’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新撰字鏡》 이체자에서 보이는, 연결된 部件을 단절하여 다른 비슷한 部件의 형태와 비슷하게 변형시키는 이체규율로 비추어 볼

14) 《說文解字·竹部》: “筭, 長六寸, 計歷數者. 从竹从弄, 言常弄乃不誤也. 蘇貫切.”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028쪽)

15) 《字彙》: “筭, 同算”(梅膺祚, 《字彙》(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년, 343쪽.)

16) 顧野王, 《玉篇》(《字典彙編》편집위원회, 《字典彙編》11권(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년), 70쪽.

17) 北齊臨淮王象碑或其弗沙等名竿億, 案算作筭. (《金石文字辨異·去聲翰韻·算字》, 中華民國教育部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_a03013.htm)에서 재인용.

18) 《金石文字辨異》에서 〈漢張遷碑〉의 자형 인용. (中華民國教育部教育部異體字字典, 위와 같음.)

때 충분히 자형 상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글자도 ‘筭’의 이체자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筭’·‘筭’·‘筭’ 자형은 ‘筭’이 일반적인 이체자 형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모두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2.2.7 標題字+글자수+形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錙錙, 二形同作. 側飢反. 銖六則錙二. 錙則錙, 二則兩也. 《新撰字鏡》卷6 金部》

‘錙’는 ‘錙’의 이체자형이다. 《隸辨》에서는 ‘𨾏’에 대해, ‘바로 𨾏자이다. 여러 碑銘에서 ‘𨾏’자를 ‘𨾏’자로 쓰고 있으므로, ‘𨾏’는 ‘𨾏’로도 쓴다(即𨾏字. 諸碑𨾏作𨾏, 故𨾏亦作𨾏)’고 해설했다. 즉 ‘𨾏’는 ‘𨾏’의 이체자이다. 따라서 ‘錙’와 ‘錙’는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실제로 동일한 異體部件이 글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과 訛變되는 경우가 많은 《新撰字鏡》에서 ‘𨾏’와 ‘𨾏’部件을 포함한 이체자형 조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정형화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호 연관된 標題字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앞서 언급했듯이 《新撰字鏡》의 체제는 타 자서에 비해 상당히 독특하다. 심지어 불안정하기까지 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유롭고 글자해설의 유연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자서에서는 각 標題字의 해설이 독립성을 가지고 최대한 서로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데 반해 《新撰字鏡》은 특별한 표시 없이도 인접한 標題字끼리 자형 상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星, 司零反. 平. 散也. 精也. 羅也. 列也. 位布散也. 萬物精也.”, “星, 同作.”, “乖, 古文.”을 보면, ‘星’·‘星’·‘乖’ 세 글자는 각각 標題字로 지정되어 있는데, ‘星’

을 기준으로 ‘星’은 ‘星’의 이체자고, ‘乖’은 고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자서의 체례에 맞추면 “星, 司零反. 平. 散也. 精也. 羅也. 列也. 位布散也. 萬物精也. 星, 同作. 乖, 古文.”이라고 했어야 했지만, 《新撰字鏡》에서는 正字를 위에, 俗字를 중간에, 古文을 맨 아래 두는 등 표제자간의 긴밀한 자형 속성 정보를 나름대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한 標題字가 이처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때는 대부분 ‘上’이나 ‘上字’ 같은 고정된 용어를 사용하여 標題字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한다.¹⁹⁾

3.1 上同/上同字/上同作/上字/上字同

3.1.1 上同

이 형식은 標題字를 나열하고, 그것이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같은 글자, 즉 그 글자의 이체자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累, 正力維反. 平. 繫也. 甲藏也. 索也. 綸也. 借力彼反. □. 又力瑞反. 去. 黨屬也. 連及也. 重也.
 纍, 三上同. 《新撰字鏡 卷4 糸部》

위 예시의 결론은 ‘纍’·‘索’·‘𣎵’ 세 글자는 위에서 해설한 ‘累’자와 같다는 것이다. 우선 ‘纍’와 ‘累’의 본의를 파악하여 두 글자의 관계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說文》에 따르면 ‘纍’는 ‘綴得理’와 ‘大索’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²⁰⁾ 《段注》에서 ‘綴得理’를 ‘合箸’로 풀이하였고,²¹⁾ 《前

19) 특히 上字라는 용어는 이체자가 아닌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나온 글자와 의미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엄정하지 못한 것이 《新撰字鏡》 주석 체례의 맹점이다.

20) 《說文解字新訂·糸部》: “纍, 綴得理也. 一曰大索也. 从糸畀聲. 力迫切.”(許慎著, 臧克和王平 校點, 《說文解字新訂》(北京: 中華書局, 2002年, 870쪽)

21) 段玉裁, 《說文解字注·糸部》: “綴得理也. 綴者, 合箸也. 合箸得其理, 則有條不紊. 是曰纍. 樂記曰. 纍纍乎端如貫珠. 此其證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656쪽(下).

漢·李廣傳》의 “以劒斫絕纆.” 구절의 주에서 ‘纆란 밧줄을 말한다(纆, 索也)’고 한 것처럼 ‘纆’는 ‘엮어매어 나타나는 무늬’·‘밧줄’ 등을 뜻한다. 후에 이 두 의미소의 기초에서 ‘묶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²²⁾ 한편 ‘累’자는 《說文》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力委切(《廣韻》)’로 읽힐 때는 《老子》제64장의 ‘구층의 높은 누대도 흙을 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九層之臺, 起於累土)’라는 구절에서처럼 ‘쌓다’를 뜻한다. 또 ‘倫迫切(《集韻》)’로 읽힐 때는 《莊子·外物篇》의 ‘작은 낚싯대와 가는 줄로 도랑에 가서 송사리나 붕어를 노리는 낚시를 하면서 큰 고기를 잡는 것은 어렵다(揭竿累, 趣灌瀆, 守鯢鮪, 其於得大魚難矣)’는 구절과 같이 ‘줄’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다시 ‘묶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²³⁾ 이처럼 ‘纆’와 ‘累’는 의미상 서로 ‘줄’과 ‘묶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자형 면에서도 동일한 자소가 중첩된 복잡한 자형이 생략을 통해 간략한 글자로 변하는 한자자형의 진화규칙에도 걸맞으므로, ‘纆’의 중첩 자소가 생략되어 ‘累’라는 이체자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글자를 서로 같은 글자라고 본 昌住의 견해는 옳다.

‘𣎵’는 《說文》에서 ‘더해지다’는 뜻이다. 𣎵와 糸로 구성되었다. 𣎵는 또 十黍의 무게를 뜻한다(增也. 从𣎵从糸. 𣎵十黍之重也)’로 해설하고 있다. 즉 이 ‘𣎵’자는 《說文》에 같이 수록된 ‘纆’자와 별개의 글자로 무게단위였다가 후에 ‘纆’와 ‘累’로 통용되어 왔다.²⁴⁾ 顏師古 같은 학자는 소전에서 ‘𣎵’형태였던 部件이 隸變을 거치면서 ‘田’으로 변하여 ‘累’이 되었으며, ‘𣎵’이 ‘累’의 古字가 된다고 하였는데, ‘𣎵’자가 ‘累’의 이체자가 된 과정의 한 단면을 알 수 있게 한다.²⁵⁾

22) 《玉篇》繫也. 《廣韻》係也. 亦作縲. 《左傳·僖三十三年》不以纆臣繫鼓. 《註》纆, 囚繫也. 《前漢·司馬遷傳》幽于纆紲. 《註》纆, 係也. (陳廷敬·張玉書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103쪽.)

23) 《禮記·儒行》: “不累長上.” 鄭玄注: “累, 猶係也.” 《呂氏春秋·觀世》: “齊人累之, 名為越石父.” 《史記·趙世家》: “侵暴吾地, 係累吾民.” (徐中舒,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年, 1409쪽.)

24) 《玉篇》: “纆, 力佳切. 繫也. 綸也. 得理也. 黑索也. 又力偽切. 延及也. 又力捶切. 十黍也. 亦作𣎵.” 또 “累, 同上.” (顧野王, 《玉篇》(《字典彙編》편집위원회, 《字典彙編》11권, 國際文化出版公司, 125쪽.)

25) 〈綏民校尉熊君碑〉 蔡葉休隆. 按《漢書·劉向傳》 蔡世蒙漢厚恩. 師古曰, 𣎵古累字, 《說文》 𣎵本從𣎵變 隸從田. (顧藹吉, 《隸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







《說文》에 따르면 ‘𡵓’는 ‘가래로 떠낸 흙을 쌓아 벽을 쌓는다(桑坡土爲牆壁)’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흙을 ‘쌓아’ 벽을 만든다는 의미가 ‘累’, ‘纍’와 의미상 공통점이 있으므로, ‘累’와 ‘纍’의 이체자로 간주된다.²⁶⁾

3.1.2 上同字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것이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같은 글자임을 나타낼 때 쓰는 형식이다.

年, 奴田反. 平.

𡵓, 二上同字. 《新撰字鏡 卷12 雜字部》

‘𡵓’자의 갑골문 자형은  (佚54),  (佚531),  (佚679) 등으로 사람이 머리에 벼를 이고 있는 형상을 그렸다. 즉 곡식이 익어 추수하는 모습인데, 곡식이 익어 추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로 삼아 시간을 기록했으므로 ‘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𡵓’는 《說文》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禾’와 사람의 형상이 변형된 ‘千’이 결합한 구조(从禾千聲)이므로 갑골문의 자형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𡵓’자는 隸變을 거치면서 한 대와 위진 남북조 이후의 비각에서부터 점차  (華山廟碑),  (鄭固碑),  (朱龜碑) 등의 자형으로 변하게 되어 지금의 年 형태까지 변천되었다.²⁷⁾ 《新加九經字樣》에서는 ‘𡵓·年’ 두 글자 중 위 글자는 《說文》에 나온 禾와 소리부 千을 따르는 그 것이고, 아래 글자는 경전에서 이어받아 쓴 예변자(𡵓年, 上說文從禾從千聲, 下經典相承隸變)’라고 하였다.²⁸⁾ 《新撰字鏡》의 저본인 《干祿字書》에서도 이 두

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112.htm>에서 재인용.

26) 《龍龕手鏡》: “累, 力偽切. 累帶連及也. 古作桑, 𡵓同. (行均, 《龍龕手鏡》,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위와 같음.

27) 顧藹吉, 《隸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1194.htm>에서 재인용.

28) 위와 같음.

글자가 같은 글자(季年竝同)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牽’은 ‘ㄷ’·‘刀’·‘干’의 네 部件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비슷한 자형으로 《金石文字辨異》에서 인용한 〈唐岱岳觀碑〉의 ‘牽’이나, 《集韻》의 ‘牽’, 《龍龕手鏡》의 ‘牽’ 등을 들 수 있는데²⁹⁾, ‘ㄷ’ 部件이 이들 자형의 것과 다르고, 중국의 이체자에는 ‘刀’가 ‘力’으로 대체된 것도 있으며, ‘丨’이 글자 전체를 관통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部件의 공통성을 가지므로 두 그룹간의 자형 연관성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형에 대해 《龍龕手鏡》은 ‘牽’자가 ‘年’자의 고문(古文年字)이라고만 한 데 반해, 《集韻》은 ‘牽’자가 당 대 측천무후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라고 그 연원까지 밝혔다³⁰⁾. 따라서 이 세 자형은 이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1.3 上同作

이 역시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먼저 나온 標題字와 같은 자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형식이다.

逮, 徒載反. 及也. 通也. 与也. 遁也. 衆也.

逮, 上同作. 雖然音訓別也. 力穀反. 《新撰字鏡 卷9 辵部》

‘逮’는 《說文》에 따르면 의미부 ‘辵’과 소리부 ‘隶’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미치다(及)’를 뜻한다.³¹⁾ 소전의 隸자형은 예변을 거쳐 ‘隶’형태로 변하여 ‘逮’와 같은 자형으로 정형화 되었다가, 다시 소전과 비슷하지만 세로획이 다 관통하지는 못하고 생략된 ‘录’ 형태의 省體 이체자, 즉 ‘逮’과 같은 자형이 생겼다. 이 ‘逮’자가 오히려 소전의 자형과 더 비슷하므로 ‘逮’자의 古字라고 보기도 한다.³²⁾ 사실 두 번째 標題字 ‘逮’은

29) 위와 같음.

30) 《集韻》……季或作年, 唐武后作牽, 亦書作秆. (宋祁·鄭戡 著, 《集韻》,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위와 같음.)

31) 《說文·辵部》: "逮, 唐逮, 及也. 从辵隶聲."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勘,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106쪽)

32) 《集韻·代韻》: "逮, 及也. 古作逮." (徐中舒 撰, 《漢語大字典》(成都: 四川

원래 ‘遼’의 이체자이다. 《說文》에서는 ‘遼’을 ‘걸음걸이가 매우 조심스러움’을 뜻하며 ‘盧谷切’로 읽히는 글자라고 풀이하였다. ‘遼’자의 소전 자형은 ‘𨔵’로 의미부 ‘辵’과 소리부 ‘𣎵’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𣎵’의 ‘ㄱ’은 ‘ㄴ’ 형태로 많이 바뀌므로, 이 글자도 ‘𣎵’ 형태로 변형되어, ‘遼’이라는 이체 자형이 나타났다.³³⁾ 이처럼 ‘遼’과 ‘遼’은 별개의 글자였으나 자형의 변천과정에서 ‘遼’이라는 동일한 이체자형이 나타나, 음과 훈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용되었다.

3.1.4 上字/上字同

3.1.4.1 上字

‘上字’라는 용어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해설한 글자의 이체자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다.

河, 故歌反. 水名, 出稽山.

𣎵, 上字. 《新撰字鏡 卷3 水部》

‘𣎵’자는 《新撰字鏡》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자형으로, 중국의 이체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新撰字鏡》의 풀이에 따르면 이 글자는 ‘河’의 이체자로 구성 部件은 ‘水’와 ‘可’로 같지만 위치가 다르다. 漢 魏晉 南北朝 이래 수많은 이체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部件의 위치이동도 중요한 이체 규율이었다. 이 때 좌우구조의 형성자가 상하구조로 바뀔 때 보통 소리부를 위로 올리고 의미부를 아래로 내렸다.³⁴⁾ 이 ‘𣎵’자도 ‘𣎵’나 ‘𣎵’처럼 좌우구조에서 상하구조로 변형되어 생성된 이체자이다.

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년, 1604쪽 재인용)

33) 《重訂直音篇卷三·辵部》: “遼, 音綠. 謹行貌. 又象也.” 또 “遼, 同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5087.htm>에서 재인용)

34) 毛遠明,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12年), 197쪽 참조.

3.1.4.2 上字同

‘上字同’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나온 글자의 이체자로 두 글자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鑒, 古懺反. 炤也. 照也.

暨, 上字同. 鏡也. 察也. 戒也. 《新撰字鏡 卷6 金部》

‘鑒’은 ‘鑒’자에서 한 점이 더 늘어난 增劃 이체자이다. 서사 과정에서 별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점이나 획을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글자의 영향을 받아 그 글자와 닮아가는 경우도 있다.³⁵⁾ 이 ‘鑒’자도 ‘冬’자처럼 상하 두 점을 찍는 습관이 반영되어 나타난 이체자가 아닌가 한다. 또 이 ‘鑒’은 ‘鑒’의 俗字이다³⁶⁾ 금문 자형에서 보면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얼굴을 비추어 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𣎵(攻吳王鑑), 𣎵(吳王光鑑), 𣎵(智君子鑑) 등으로 썼다. 고문자 자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鑑’과 ‘鑒’은 ‘監’과 ‘金’ 두 字符를 구조만 달리 썼을 뿐 같은 글자이다.³⁷⁾

3.2 正作/上正作

‘正作’이라는 용어는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正字’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3장에서 기술하는 예는 모두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관련지어 正字임을 밝힌 유형을 말한다.

35)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87-89쪽 참조.

36) 《干祿字書》: "暖鑒, 又古懺反. 上通下正." (《字典彙編》編委會 편집, 《字典彙編》13권 중 顏元孫 《干祿字書》(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年), 4쪽)

37) 《重訂直音篇》: "鑑, 古陷切. 鏡也. 察也. 又音緘. 鑑鑒, 並同上. 鑑鑒, 亦同上(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4359.htm>에서 재인용)

𨇖, 除殄反. 止也. 履也. 趁也.
𨇖, 上正作. 《新撰字鏡 卷2 足部》

《新撰字鏡》에서는 ‘𨇖’을 거의 대부분 ‘久’의 형태로 변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이체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중화민국 교육부 이체자사전’에서 수록한 ‘𨇖’부의 글자 중 《佛教難字字典》에서 인용한 ‘𨇖’자 정도가 있다. ‘𨇖’자의 ‘𨇖’ 역시 ‘𨇖’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𨇖’ 형태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𨇖’은 ‘𨇖’의 正字이다.

3.3. 上俗作/上字俗作.

‘俗作’이라는 용어는 앞서 기술한 ‘正作’과 대비되는 용어로,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俗字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소절에서 기술하는 예 역시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관련지어 正字임을 밝힌 유형을 말한다. ‘上’이나 ‘上字’와 같이 써서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正俗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諄, 薄背反. 又蒲沒反. 入. 言亂也. 逆也. 悖字.
諄, 上字俗作. 《新撰字鏡 卷3 言部》

《新撰字鏡》은 ‘諄’나 ‘悖’ 등, ‘悖’ 字符가 들어간 글자를 ‘悖’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金石文字辨異》가 〈北魏孝文帝比干墓文〉³⁸⁾에서 수록한 ‘悖’ 자형과 《新撰字鏡》의 중요 저본인 《玉篇零卷》에서도 이 자형이 나타나고 있어 ‘諄’의 俗字체인 ‘諄’자형이 魏晉 南北朝 碑刻文字에서부터 저자가 《新撰字鏡》을 찬술하던 시대까지 면면하게 계승되어 온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³⁹⁾

3.4 上古文

38) 中華民國 教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1360.htm>에서 인용.

39) 顧野王, 《原本玉篇殘卷》(北京: 中華書局, 2004年), 16쪽 참조.

이 형식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해설한 글자의 고문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曝, 補木反. 入. 日乾也. 曬.
磨, 上古文. 《新撰字鏡 卷1 日部》

《龍龕手鏡》은 ‘暴’·‘曝’·‘曝’을 俗字로, ‘暴’을 正字로 규정짓고 있다.⁴⁰⁾ 또 《說文·日部》에서는 ‘暴’을 ‘별에 말리다. 日과 出, 収과 米로 구성되었다. 磨, 고문 暴은 日을 의미부로하고 鹿를 소리부로 한다(晞也. 从日从出, 从収从米. 磨, 古文暴从日鹿聲)’고 하였다. 따라서 ‘曝’는 ‘暴’자의 俗字이고, ‘磨’는 ‘暴’자의 고문이므로, ‘曝’의 고문이라고 한 《新撰字鏡》에서 밝힌 ‘磨’의 자형 속성 정보는 옳은 것이 된다.

4. 주석을 통한 자형 속성 관계 규명

《新撰字鏡》의 주석은 앞선 2,3장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규율성 있는 체례와 용어로 각 글자의 正字, 俗字 등의 자형 속성 정보를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 다룰 체례는 앞 장에서 기술한 체례들이 표제에 다양한 이체자를 나열하거나, 아래위로 배열한 標題字 자체가 마치 자양서에서 俗字와 正字를 아래위로 나누어 배치 하듯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독립된 한 標題字에 대한 해설과정에서 그 글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이체자를 제시하고 正字, 俗字, 古今字 등 세부적인 문자속성 정보를 밝힌 것들이다.

4.1 字同/形同

40) 中華民國 教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1821.htm>에서 인용.

4.1.1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字同

이런 체례는 하나의 標題字 아래 다른 이체자들을 제시하고 標題字와 이 글자들이 같은 글자임을 밝히는 형식이다.

謠, 葛羅反. 歌哥二字同. 《新撰字鏡 卷3 言部》

《說文》의 ‘歌’ 해설을 보면 ‘노래한다는 뜻이다. 欠을 의미부로 하고 哥를 소리부로 한다. 歌는 言部를 따르기도 한다(詠也. 从欠哥聲. 歌, 或从言)’고 하였다.⁴¹⁾ 《玉篇》의 ‘謠’ 해설은 ‘歌로 쓰기도 한다(謠, 亦作歌)’고 하였다. 즉 ‘謠’는 ‘歌’의 이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글자가 같다고 한 점은 옳다.

다음으로 ‘歌’와 ‘哥’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哥’는 소리이다. 《說文》에서는 ‘두 可를 따르며, 고문에서는 이를 謠자로 하기도 한다(聲也. 从二可. 古文以爲謠字)’고 하였다.⁴²⁾ ‘可’의 갑골문자형은 𠂔(甲 3324)로 농기구와 입, 즉 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哥’는 ‘可’를 중첩하여 원래의 ‘노래하다’의 의미를 더 강화하였다. 《段注》에서 ‘지금은 형의 호칭으로 쓰이고(今呼兄爲哥), 《漢書》에 歌를 哥로 많이 쓴다’고 밝혔듯이 여러 문헌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哥’이 형의 호칭으로 가차되면서 원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 ‘欠’이 덧붙여졌다. 따라서 ‘哥’와 ‘歌’는 古今字로 같은 글자라고 할 수 있다.

4.1.2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形同

이런 체례는 하나의 標題字 아래 다른 이체자와 그 수를 제시하고 標題字와 이 글자들이 같은 글자임을 밝히는 형식이다.

41)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574쪽.

42)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309쪽.

蹀, 祖到反. 蹀蹀二形同. 不安靜也. 佐和反. 《新撰字鏡 卷2 足部》

‘蹀’의 필사법은 《新撰字鏡》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으로 ‘蹀’와 점의 위치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지만 같은 글자로 볼 수 있다. ‘蹀’자는 또 ‘蹀’의 俗字인데, 《干祿字書》는 ‘蹀’를 俗字로 ‘蹀’는 正字로 규정짓고 있다.⁴³⁾ 또 《說文解字》‘蹀’자의 풀이를 보면, ‘빠르다. 走를 의미부로 따르고, 臬를 소리부로 한다(疾也. 从走臬聲)’고 하였고, 徐鉉 등은 오늘날 俗字에서 ‘蹀’로 쓴다고 하였다.⁴⁴⁾ 《集韻》도 ‘蹀蹀’은 《說文》에서 빠르다고 풀이했다. ‘蹀’로 쓰기도 한다(蹀蹀, 《說文》疾也. 或作蹀.)’고 하며 ‘蹀’를 ‘蹀’의 이체자로 보았다. 《五經文字》에서는 ‘蹀蹀’ 두 글자는 같다. 子와 到의 반절이며, 위의 글자는 《周禮》에 나온다(蹀蹀, 二同. 子到反. 上見《周禮》)’고 하였다. 따라서 ‘蹀’와 ‘蹀’, ‘蹀’ 세 글자는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4.2 同作

4.2.1 標題字+이체자형+同作

이 형식은 ‘同作’의 앞에 標題字의 이체자를 제시하고 두 글자가 같은 글자임을 설명한다.

講. □兂張流二反. 平. 狂也. 相欺惑也. 講同作.

‘講’는 ‘講’의 이체자이다. 《說文》‘講’ 풀이를 보면, ‘저주하다. 言部를 따르고 壽를 소리부로 하며, 講로 읽는다(誚也. 从言壽聲. 讀若講)’고 하였다. 《段注》에서는 ‘誚’라고 풀이하었는데, ‘誚’는 ‘저주하다(誚)’는 뜻이다. 따라서 ‘講’는 ‘誚’이기도 하다(誚也. 按誚,

43) 《干祿字書》: 蹀蹀, 并上俗下正. (《字典彙編》編委會 편집, 《字典彙編》13권 중 顏元孫 《干祿字書》(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년), 8쪽)

44) 許慎, 《說文解字》大徐本: “蹀, 疾也. 从走臬聲. 則到切. 臣鉉等曰: 今俗別作蹀, 非是.”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4048.htm>에서 재인용)

詛也. 則壽亦詛也)’고 보충하고 있다. 《集韻》의 ‘嘯’ 해설에서 ‘壽’, ‘疇’로 쓰기도 한다고⁴⁵⁾ 했으므로, ‘壽’와 ‘嘯’는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있다.

4.2.2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鼗, 鞀鞀鼓三形同作. 徒刀反. 跳如鼓而小, 持其柄搖桴之者也. 《新撰字鏡》 卷5 鼓部》

‘鼗’는 ‘兆’의 增劃 이체자인 ‘非’와 ‘鼓’의 俗字인 ‘鼓’로 이루어졌으며, ‘鼗’의 이체자형이다. 《集韻》은 ‘鼗’를 ‘徒와 刀의 반절이며, 음은 陶이다. 북과 비슷하나 작고, 자루를 잡고 흔들면 양쪽 귀가 왔다 갔다 하며 저절로 두드린다(徒刀切, 音陶. 如鼓而小, 持其柄搖之, 兩耳還自擊)’고 풀이했다. 《廣韻》에 따르면 ‘鞀’과 ‘鞀’는 모두 ‘鼗’와 같은 글자다.⁴⁶⁾ 《玉篇》에서도 ‘鞀’과 ‘鞀’를 같은 글자로 본다.⁴⁷⁾ 즉 ‘鼗’의 의미부인 ‘鼓’는 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가죽이라는 점에서 ‘革’으로 대체되었고, 음을 표시하는 ‘兆’는 그대로 유지한 채 ‘鞀’가 되었다. ‘鞀’자는 ‘鞀’자와 비슷한 음가를 가진 ‘召’로 성부가 바뀌어 나타난 이체자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鼓’는 나머지 세 글자의 이체자가 아니라 동의자로 보아야 한다.

4.3 (與)某字同

45) 《集韻》嘯, 與壽同. 詞也. 或作疇壽.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75쪽에서 재인용.

46) 鼗, ……鞀, 鞀并上同.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5617.htm>에서 재인용)

47) 《玉篇》: 鞀, 與鞀同. 如鼓而小, 持柄搖之, 旁耳還自擊.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689쪽에서 재인용.

이 형식은 직접 일대일로 標題字가 어떠한 글자와 이체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防, 坊字同. 扶方反. 徧也. 當也. 蔽也. 禁也. 郭也. 和也. 《新撰字鏡 卷 9 阜部》

《說文》에 따르면 ‘防은 제방이며, 阜 부를 따르고 方을 성부로 한다. 防은 墜처럼 土부를 따르기도 한다(防, 隄也. 从阜 方聲. 墜, 防或从土)’고 했다. 《段注》에서는 ‘土부를 따르는 防의 或體를 俗字에서 坊으로 쓰는 근거(防或从土. 俗字所由作坊也)’라고 보았다. 《玉篇》에서도 ‘防’을 ‘坊’으로 쓰기도 한다고 했다. 따라서 《新撰字鏡》에서 ‘防’을 ‘坊’의 이체자로 보는 것도 근거가 있다.

4.4 亦作/或作/又作

‘亦作’·‘或作’·‘又作’ 같은 형식은 다른 자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체레이며, 《新撰字鏡》에서도 標題字와 이체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물론 주석 속에서 모 글자와 그 이체자를 언급할 때에도 자주 쓰인다.

4.4.1 亦作

4.4.1.1 亦作某/亦作某某

이 형식은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한다.

氣, 亦作炁. 去既反. 去. 鬱也. 息也. 《新撰字鏡 卷1 气部》

《玉篇》에서는 ‘炁’를 ‘氣’의 古字라고 했다. 하지만 《玉篇》에서 말한 것처럼 ‘氣’의 古字라고 간단하게 규정짓기에는 ‘炁’·‘氣’·‘气’ 사이의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 《集韻》에 보면 ‘气’는 《說文》에서 雲氣라고 하였다. 상형이다. 무릇 气에 속하는 자는 气를 따른다. 息이라고도 하는데, 氣나 炁로 쓰기도 한다(气, 《說文》雲气也. 象形. 凡气之屬皆从气. 一曰息也. 或作氣炁)’고 하였다. 《集韻》에 따르면 ‘氣’나 ‘炁’는 모두 ‘气’의 이체자이지만, 좀 더 엄격하게 보면 ‘氣’는 ‘气’의 今字이며, ‘炁’는 ‘气’의 或體로 보아야 한다.⁴⁸⁾

4.4.1.2 亦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상황에 따라 同이 붙기도 한다.

愼, 亦作寢言二形. 于劇魚祭二反. 眠內不覺. 妄言也. 《新撰字鏡 卷2 心部》

‘愼’는 《說文》에서 ‘잠결에 하는 말로 충기가 없다. 心부를 따르고 衛를 소리부로 한다(寢言, 不慧也. 从心衛聲)’고 하였다. 즉 잠꼬대를 이르는 말이다. 《集韻》에서는 ‘于’와 ‘劇’의 반절이며 衛음이다. 《說文》에서 잠결에 하는 말로 충기가 없다고 하였다. 言部를 따르는 자형도 있다(于劇切, 音衛. 《說文》"寢言不慧也." 或从言)’고 하였다. 바로 ‘讐’자를 말한다. 따라서 ‘愼’를 ‘讐’로 쓰기도 한다는 《新撰字鏡》의 주석 내용은 틀림이 없다. 寢는 《說文》에 따르면 ‘瞑言이다. 寢의 생략형을 의미부로 따르고 臬을 소리부로 한다(瞑言也. 从寢省, 臬聲.)’고 하였다. 《段注》는 ‘瞑은 눈을 감았다는 말이다. 명언은 수면 중에 말을 하는 것을 뜻한다(瞑, 目翕也. 瞑言者, 寐中有言也.)’고 설명했다. ‘寢’는 ‘愼’, ‘讐’와 뜻이 같다. 게다가 《廣韻》의 ‘愼’ 풀이에 따르면 ‘魚와 祭의 반절이다. 嚙음이다. 寢와 같다. 역시 잠꼬대를 이른다(魚祭切. 音嚙. 與寢同. 亦睡語也)’고 하였다.⁴⁹⁾ ‘寢’의 음가 역시 ‘魚祭切’로, 《廣韻》에 따

48) 气氣古今字. 自以氣爲雲气字. 乃又作飢爲廩氣字矣. 气本雲气. 引伸爲凡气之僞.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20쪽 인용)

49)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991쪽 재인용.)

르면 ‘懲’, ‘癰’ 두 글자의 음과 뜻은 동일하다. 따라서 ‘懲’를 ‘癰’와 ‘讐’ 두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4.4.2 或作

4.4.2.1 或作某

이 형식 역시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형식이다.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한다.

𪎭, 去玄反. 麥莖也. 稯也. 或作稯. 在禾部. 《新撰字鏡 卷11 麥部》

‘𪎭’자는 《集韻》의 풀이에 따르면 ‘圭와 懸의 반절로, 涓음이며, 보리 줄기(𪎭, 圭懸切, 音涓. 麥莖也)’를 말한다. 또 《六書故》에서는 ‘麥稯이다. 稯으로 쓰기도 한다(麥稯也. 別作稯)’고 하였다.⁵⁰⁾ 두 사실을 종합하면 ‘𪎭’과 ‘稯’은 이체자가 된다. 《說文》의 ‘稯’ 풀이를 보면, ‘보리 줄기이다. 禾부를 따르고 𪎭을 소리부로 한다(麥莖也, 从禾𪎭聲)’고 했다. ‘𪎭’은 ‘稯’에서 의미부가 ‘麥’으로 교체되어 형성된 이체자로 보인다.

4.4.2.2 或作+異體字形+同/或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

이 형식 역시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형식이다.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하며, ‘或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처럼 글자수를 표시하기도 한다.

暉暉, 二字同. 或作輝輝同. 虛席肝飛二反. 平. 光也. 猶光明也. 氏良須. 《新撰字鏡 卷1 日部》

50)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865쪽 재인용.

‘暉’는 《說文》의 풀이에 따르면 ‘빛이며, 日부를 따르고 軍을 소리부로 한다(暉, 光也. 从日軍聲.)’. 《廣韻》에 따르면 ‘許歸切이다. 한편 《說文》 ‘暈’에는 ‘日月의 氣이다. 日부를 따르고 軍을 소리부로 한다(日月氣也. 从日軍聲)’고 하였으며, 《廣韻》·《集韻》·《韻會》 등에 따르면 ‘王問切’의 음가를 가진다. 이 두 글자는 음은 다르지만 의미에서는 ‘光’, ‘日旁氣’ 등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段注》에서는 ‘전서체는 당연히 暉를 暈으로 썼을 것이다. 《周禮》에서는 暈을 輝로 썼는데, 고문假借字이다.……맹강은 暈은 ‘日旁氣’다. 전서체에서는 日이 위에 있었는데, 그 중에 옆으로 옮겨 쓰는 자형도 있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자형이 暉로 바뀌었고, 訓도 빛으로 바뀌었다. 사실 火부의 輝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篆體暉當作暈. 周禮暈作輝. 古文段借字. ……孟康曰, 暈, 日旁氣也. 篆體日在上. 或移之在旁. 此篆遂改爲暉. 改其訓曰光. 與火部之輝不別)’고 하며, ‘暉’와 ‘暈’이 원래는 한 글자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暉’·‘暈’·‘輝’·‘輝’ 사이의 관계를 보자. 우선 ‘暉’자는 《玉篇》 ‘暉’ 풀이에서 “暉, 或作輝”라고 했듯이 ‘輝’자의 이체자이다. 또 陸德明的 《經典釋文》에서도 ‘暉는 輝로도 쓴다(暉, 又作輝)’하였으므로, ‘暉’·‘輝’·‘輝’ 세 글자의 이체자 관계는 증명된다.⁵¹⁾ ‘輝’·‘輝’ 두 글자 중 역대 자서에서 ‘暈’의 이체자라고 기술한 것은 ‘輝’자 정도이다. ‘輝’는 揮音과 運音 두 가지 음이 있는데, 運音으로 읽힐 때 ‘暈’과 같이 쓰인다.⁵²⁾

4.4.3 又作

4.4.3.1 又作某

이 역시 標題字의 이체자형을 제시할 때 쓰는 체례이다.

51)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642쪽 재인용.

52) 《釋文》暈, 本又作輝. 亦作運.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642쪽 재인용.)

𧰨, 都礼反. 又作𧰨. 抵也. 角觸也. 《新撰字鏡 卷5 牛部》

‘𧰨’자는 ‘抵’의 俗字이다. ‘抵’는 《說文》에서 ‘들이받다. 牛部를 따르고 氏를 소리부로 한다(觸也. 从牛氏聲)’로 풀이하고 있다. 《段注》는 角部에서 ‘觸은 ‘抵(들이받는다)’라는 뜻이다. 抵와 𧰨로 쓰기도 한다(角部曰, 觸, 抵也. 亦作抵𧰨)’고 설명하였다. 즉 ‘抵’와 ‘𧰨’는 ‘觸’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康熙字典》에 따르면 ‘𧰨’는 ‘抵’와 같다고 했다.⁵³⁾ ‘抵’와 ‘𧰨’는 둘 다 ‘뿔로 무언가를 들이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음도 같다. 다만 들이받는 주체인 소(牛)와 직접 들이받는 부위인 뿔(角)이 상호 대체되었다고 본다면, 이 두 글자는 이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4.3.2 又作+異體字形+同/又作+異體字形+글자수+形/又作+異體字形+글자수+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躓, 又作顛越二形. 丁賢反. 眞倒也. 《新撰字鏡 卷1 足部》

《說文》에서 ‘躓’은 ‘밟다. 足部를 따르고 眞을 소리부로 한다(跋也. 从足眞聲)’고 해설한다. 이에 《段注》는 ‘跋也. 《左傳》의 “子都가 아래에서 활을 쏘아 그것을 고꾸라뜨렸다”처럼 경전에서는 주로 顛字로 가차된다(跋也, 經傳多段借顛字爲之. 如左傳子都自下射之顛是也)’고 설명했다.⁵⁴⁾ 따라서 《新撰字鏡》주석의 ‘躓’은 ‘밟다’의 의미가 아니라 ‘顛(넘어지다)’로 가차된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集韻》의 ‘顛’ 해설에서 ‘顛’은 ‘眞, 躓과 같다.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다(《集韻》

53) 《廣韻》都禮切《集韻》《正韻》典禮切, 音邸. 與抵同. 觸也. 《韓愈·進學解》𧰨排異端.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點,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373쪽.)

54)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83쪽 인용.

顛, 與眞顛同. 躓也)’고 한 부분과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간다. 한편 ‘蹇’자는 《說文》에서 ‘走顛이다. 走부를 따르고 眞을 소리부로 한다. 顛과 같이 읽는다(走顛也. 从走眞聲. 讀若顛)’고 하였고, 《段注》에서는 ‘足部에서 躓이 跋이라고 하였다. 이와 음과 뜻이 같다. 走部를 따르고 眞을 소리부로 한다(足部曰, 躓, 跋也. 此與音義同. 从走, 眞聲. 讀若顛)’고 했다. 일반적으로 ‘讀若’는 그 뒤의 글자와 같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走顛’이란 바로 ‘顛(넘어지다)’을 뜻한다. 즉 ‘躓’자가 ‘顛’으로 가차되어 쓰인 것과 같이 ‘蹇’ 역시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躓’과 ‘蹇’이 이체자 형성과정에서 자주 호환되는 足부와 走부의 글자라는 점에서 두 글자가 이체자라는 것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4.4.3.3 又作某同

𥽿, 又作𥽿同. 气音. 堅米也. 謂米之堅硬春擣不破者也. 《新撰字鏡 卷8 禾部》

𥽿은 《說文》에서 ‘稭이다. 禾부를 따르고 气를 소리부로 한다(𥽿, 稭也. 从禾气聲)’라고 하였다. ‘稭’에 대해 《說文》에서는 ‘春粟不潰也’라고 했는데, 《集韻》⁵⁵⁾같은 후세의 자서와 《段注》에서는 이를 ‘春粟不潰也’, 즉 ‘쪄어도 물러지지 않는 곡식’으로 고쳤다. 한편 ‘𥽿’자는 《說文》에서 ‘𥽿은 堅麥을 이른다. 麥부를 따르고 气를 소리부로 한다(𥽿, 堅麥也. 从麥气聲)’고 하였다. 《段注》에서는 ‘堅麥이란 보리 중 단단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史記》와 《漢書》에 나오는 ‘역시 糠覈이나 먹을 따름이다’라는 구절에서 孟康은 覈이 바로 맥강 중에서 빵아지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謂麥之堅者也. 史漢皆云, 亦食糠覈耳. 孟康曰. 覈, 麥糠中不破者也)⁵⁶⁾고 설명하고 있다. 즉 ‘堅麥’이란 빵아지지 않은 곡식(보리)를 말한다. 의미적으로 볼 때 ‘𥽿’과 ‘𥽿’은 서로 통한다. 《字彙》에서 ‘𥽿’을 ‘𥽿’의 訛變字라고 하였고, 《集韻》에서는 이를

55)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3299.htm>에서 재인용.

56)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231쪽 인용.

‘거친 부스러기이다.麥을 따르기도 한다(麤屑也. 或从麥)’고 풀이하고 있는데⁵⁷⁾, 바로 ‘𪎭’의 이체자라고 볼 수 있다. 즉 ‘𪎭’자는 ‘𪎭’의 본자이고, ‘𪎭’의 이체자다. 이 때문에 《康熙字典》에서 《韓愈詩》‘선비를 거친 밥을 저어하지 않는다(士不厭糠𪎭)’의 ‘𪎭’을 ‘𪎭’로 쓰기도 한다고 풀이하였다.⁵⁸⁾

4.5 正作/俗作

《新撰字鏡》의 주석에서 이체자를 제시하고 각 글자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모두 주지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이체자 역시 세분하면 더 많은 속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新撰字鏡》이 찬술될 때 중요저본으로 삼았던 《干祿字書》와 《正命要錄》을 활용해 正字와 俗字를 구별하여 두 자형의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널리 통용되던 俗字의 실용성과 正字의 嚴正性 및 正統性을 동시에 중시하였다. ‘正作’은 《新撰字鏡》이 正字를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正作’, 즉 正字로 쓰인 글자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 책은 승려였던 저자가 스스로 경전을 읽고 수도할 때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었기 때문에 당시 통용되고 있던 자형을 최대한 많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新撰字鏡》은 이미 중국 俗字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아예 이체자형을 모아 標題字로 삼거나 주석으로 俗字라고 밝히지 않은 곳에서도 수많은 俗字가 전문에 걸쳐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후자의 예는 후속 연구과제인 《新撰字鏡》의 用字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新撰字鏡》에서 正字와 俗字로 규정짓는 체례와 그 실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5.1 正作/正字

57)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983-984쪽.)

58)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1864쪽.)

4.5.1.1 正作

《新撰字鏡》이 正字를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正作’, 즉 正字로 쓰인 글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若, 而灼反. 入. 訓也. 汝也. 如也. 儻也. 若, 正作. 當也. 猶也. 《新撰字鏡 卷2 口部》.

《說文》에 따르면, 若은 ‘푸성귀를 고른다(擇菜)’는 뜻이며, 艸와 右를 의미부로(若, 擇菜也. 从艸右)’하는 글자이다. 隸變을 거치면서 이 ‘艸’는 점차 ‘艸’로 변해갔고, 여기에서 다시 더 간략하게 ‘艸’로 변했다. 이에 따라 ‘若’의 자형도 若(孔龢碑)에서 若(鄱閣頌化流若碑)로 변천했다.⁵⁹⁾ 이에 《干祿字書》에서 ‘必은 통용되는 글자고, 若은 正字(必若, 上通下正)’라고 규정하였다.

4.5.1.2 正字

이는 모 글자를 다른 글자의 正字라고 설명하는 형식이다.

劦, 躬字正字. 《新撰字鏡 卷2 身部》

‘劦’은 ‘躬’의 이체자이다. 《說文》에 보면 ‘躬은 몸이다. 身과 呂를 의미부로 한다. 躬처럼 躬가 弓을 따르기도 한다(躬, 身也. 从身从呂. 躬, 躬或从弓)’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躬’은 ‘劦’의 이체자가 된다. 《五經文字》에는 정확히 ‘躬를 躬의 俗字이며 경전에서 통용하고 있다(躬, 俗躬字. 今經典通用)’고 규정짓고 있다.

4.5.2 俗作/俗作某

59)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450.htm> 에서 재인용.

《新撰字鏡》이 俗字로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俗正’, 즉 俗字로 쓰인 글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4.5.2.1 俗作

稍, 所角反. 鋒也. 長一丈八尺. 槩, 上俗作. 《新撰字鏡 卷10 矛部》

槩는 《說文》에서 ‘창이다. 木부를 따르고 朔을 소리부로 한다(矛也. 从木朔聲)’고 하였다.⁶⁰⁾ 또 《釋名》은 ‘稍’을 ‘길이 팔 척 되는 창을 稍이라고 한다(矛長八尺曰稍)’고 하였다.⁶¹⁾ 《廣韻》은 ‘稍의 음을 所角切이라 했고, 창 의 한 종류다. 《通俗文》에서 길이 팔 척 되는 창을 일컬어 稍이라고 했고, 槩는 위(稍)와 같다.(矛屬. 《通俗文》曰, 矛丈八者之謂之稍. 槩, 同上.)’고 했고, 《集韻》에서도 그 음을 ‘色角切이라고 했고, 稍槩는 長矛이다. 槩이라고도 쓰고, 金부를 따르기도 한다(稍槩, 長矛, 或作槩, 亦從金)’고 하였다.⁶²⁾ 종합하면 ‘槩’과 ‘稍’은 이체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新撰字鏡》의 말처럼 ‘槩’이 ‘稍’의 俗字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이체자는 한 글자의 여러 가지 자형(음과 뜻이 같은)을 일컫는 말이라서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지만 俗字는 正字와 상대되는,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형을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正俗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5.2.2 俗作某

俗字로 某 자형을 취함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60)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396쪽.

61)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948쪽.)

62)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1809.htm>에서 재인용.

叨, 他榮吐高二反. 平. 食也. 殘也. 貪也. 俗作饕.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에서는 ‘叨’를 ‘饕’의 正字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정속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說文》‘饕’의 풀이를 보면, ‘먹다. 食部를 따르고 號를 성부로 한다. 叨는 饕의 或體로 口부를 따르고 刀를 성부로 한다(貪也. 从食號聲. 叨, 饕或从口刀聲)’고 하였다. 즉 ‘叨’는 ‘饕’의 이체자이다. 이에 《段注》에서는 이 글자를 ‘饕의 俗字며, 俗字에서는 饕와 구별하여 달리 사용하고 있다(俗饕. 从口, 刀聲. 今俗與饕分別異用)’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叨’가 ‘饕’의 俗字라고 정정해야 할 것이다.

4.5.3 正俗區分

《新撰字鏡》은 《干祿字書》나 《正命要錄》같은 자양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체자를 나열하고 그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은 이미 자양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正字와 俗字를 구별하고, 기술했다는 점이다.

《新撰字鏡》은 실제로 《干祿字書》에서 제창한 俗·通·正의 三體 개념을 적용하여 글자의 정속관계를 파악하였다. 顏元孫은 《干祿字書》에서 한자를 俗·通·正 세 가지로 분류하며, ‘俗은 장부·문서·계약서·약방문 등에서 볼 수 있는 글자체로, 雅言이라고는 없어 써도 개운하지 않다. 通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 上疏나, 牋啟·尺牘·判狀 등에 써도 저급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 正은 그 자형근거가 명백하니 저술이나, 문장·對策·碑碣 등에 써도 좋을 만한 것이다(所謂俗者, 例借淺近, 唯籍帳, 文案, 券契. 藥方非涉雅言, 用亦無爽……所謂通者, 相承久遠, 可以施表奏, 牋啟, 尺牘, 判狀, 固免詆訶. 所謂正者, 並有憑據, 可以施著述, 文章, 對策, 碑碣, 將為允當)’라고 설명했다.⁶³⁾ 본 소절에서는 《新撰字鏡》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여 正俗을 분별한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4.5.3.1 俗作, 正作

𠂔 𠂔 召, 上俗作, 二正作.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의 기술에 따르면 이 세 글자 중 ‘𠂔’는 俗字이고, ‘𠂔’, ‘召’는 正字이다. 《說文》은 ‘召’를 ‘부르다. 口부를 따르고 刀를 소리부로 한다(誥也. 从口刀聲)’고 하였다. 우선 ‘𠂔’ 자형은 ‘召’의 ‘刀’가 두 획으로 줄어 나타난 省體 이체자이다. ‘𠂔’는 ‘刀’의 고문자 자형이 보존되어 내려온 이체자로 보인다. 𠂔(大徐本 說文解字)나 𠂔(魯峻碑)의 자형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⁶⁴⁾ ‘𠂔’는 俗字로 보아도 될 것 같으나, 《干祿字書》에서는 위의 글자는 俗字, 중간 글자와 아래 글자는 正字(上俗中下正)’라고 하였다. 《新撰字鏡》도 이를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5.3.2 上通, 下正

若苦, 上通, 下正.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이 ‘若’과 ‘苦’를 上通과 下正으로 구분한 것은 《新撰字鏡》이 가지고 있는 서사 편의 重視의 개념을 잘 나타낸 것이다. 필자가 《新撰字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던 것이 바로 ‘古’와 ‘右’, 심지어 ‘占’ 자형이 포함된 한자를 서로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新撰字鏡》은 필사본이고 당시 일본의 인쇄술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의 문헌은 거의 손으로 직접 필사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수당시기 중국에서 유학했던 학승들이 문헌을 들여갈 때도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필사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민간 俗字가 다량으로 일본에 유입되었고, 그 영향이 《新撰字鏡》은 물론 지금의 일본 한자에까지

63)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1쪽.

64)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0484.htm>에서 자형 인용.

남아있는 것이다. 다시 ‘古’와 ‘右’의 문제로 돌아가자. 필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사의 속도와 수고를 줄이는 것이다. 중국의 俗字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도 필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玉篇》이나 《集韻》의 ‘古’자를 보면 𠂔(《玉篇》)나 𠂔(《集韻》)⁶⁵⁾와 같이 두 번째 획인 ‘丨’이 약간씩 왼쪽으로 빠져있다. 똑바로 내려 긋는 것보다 사선으로 빠져 쓰는 것이 더 쉽고 다음으로 쓸 ‘口’자의 첫 획인 ‘丨’을 쓰기에도 빠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新撰字鏡》에서는 거의 ‘口’자의 밖으로 나갈 정도로 빠침을 길게 쓰고, 반대로 ‘右’자를 쓸 때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口’자와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빼치고 만다. 결과적으로 필사된 ‘口’와 ‘右’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고 상하문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판단해야만 하는 부정확성이 생기게 되었다. 즉 속자자형인 ‘𠂔’이 정자인 ‘苦’를 대신하여 널리 통용되고만 것이다. 이에 저자는 《干祿字書》의 俗·通·正 三體의 개념을 차용하여 ‘𠂔’을 ‘苦’의 통용자로, ‘苦’를 ‘𠂔’의 正字로 규정하였다.

4.5.3.3 通作

‘通作’은 안원손의 ‘通’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通’은 사실 ‘俗’과 큰 차이가 없다. 그저 俗字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전해 내려온 시간이 길 뿐, 바꾸어 말하면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俗字라고 보면 된다.⁶⁶⁾

𠂔, 他眼反. 踐遽也. 𠂔字.

𠂔, 上通作. 《新撰字鏡 卷2 足部》

‘𠂔’는 《說文》에서 ‘밟은 곳이다. 足部를 따르고 斷의 생략형을 소리부로 한다(踐處也. 从足, 斷省聲)’고 하였다. 《集韻》에 따르면 ‘杜管切’, 斷음이라고 하였다. 이 글자는 ‘足’과 ‘斷’의 생략형 ‘𠂔’으로 이루어

65)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448.htm>에서 자형 인용.

66)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1쪽.

졌다. 이 ‘𨾏’형은 ‘繼’의 간화 속자 ‘繼’에도 나타나며, 현재 ‘𨾏’의 간체자로 정착되었다. 《新撰字鏡》에서도 이 간화형태가 나타나는데, ‘迷’의 형태로 약간 변형되어 있다. ‘𨾏’자는 중국의 俗字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足’과 ‘𨾏’의 간화 형태가 결합된 간화 이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新撰字鏡》은 ‘𨾏’가 ‘繼’의 통용되는 자형(通作)이라고 하였다.

4.6 기타 체례

지금까지 《新撰字鏡》에서 正字와 俗字, 古文과 今文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체례들을 알아보았다. 앞에서 든 예들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형식이고 《新撰字鏡》주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만큼 《新撰字鏡》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이 책을 이용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실들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체례 설명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형식들이 있고, 편폭의 제한으로 다음 연구에서나 제대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古文’·‘古文作’·‘古作’ 등의 용어로 고문 자형을 제시하고 그 속성을 밝힌 예나 (2)‘今為某’·‘今為某字’·‘今作某’·‘今作某字’ 등의 형식과 (3)‘古作某, 今作某’·‘上古作, 下今作’·‘古文作某, 今作某’·‘古文(作)某某(글자수+形), 今作某’·‘某上古文, 今作某’ 등으로 古今字의 관계를 밝히는 형식 등이다.⁶⁷⁾

4.6.1 古文 자형을 제시하고 속성을 밝힌 예

- 晄晃, 二字同作. 古文亦作熿煌. 同胡廣反. 明也, 暉也, 光也, 光明也, 曜也, 照也.
- 𠂔𠂔𠂔𠂔[天], 四字皆天古文.
- 𠂔, 渠基反. 期古文.
- 股, 古文骹. 公戶若二反. 上. 固也. 為強固也. 倭古於反. 字豆毛毛.
- 𠂔𠂔, 二同. 古證反. 古文孕字, 懷字.

67) 본 소절에서는 편폭의 제한으로 이러한 체례들의 예들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新撰字鏡》의 古文과 古今字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𦍋, 齒赤反. 古文赤字.
- 固, 古文作𦍋. 古口. 堅也. 文也. 必也. 故也.
- 軌, 記洧反. 車之轍也. 法跡也. 恣, 上同. 古文作𦍋. 居美反.
- 聳, 古文作𦍋. 聳三形. 所頃湏奉二反. 聳也. 竦也. 上也. 跳也. 欲也. 高也. 曾比介.
- 糴, 古文作𦍋. 糴二形. 拏救反. 𦍋, 雜也. 糴, 雜飯也.
- 𦍋, 啓字古文. 苦禮反. 開也. 踞也. 闕字. 同刻也. 發也. 跪也. 小踞也.
- 鍼, 支湛反. 平. 刺也. 鍾也. 諫也. 針也. 針箴. 箴綴衣也. 教也. 戒也. 針箴二字古作.
- 話, 古作𦍋. 胡快反. 諠譁也. 善言也. 調也. 訛也.
- 酷, 古作𦍋. 酷三形. 口木反. 急也. 極也. 熟也. 酒味. 加良志.

4.6.2 今字를 제시하여古今字 관계를 밝힌 예

- 莫, 正芒昨反. 入. 弗也. 元也. 莫莫為也. 散也. 莫府也. 大也. 冢布也. 也古作𦍋. 借亡故反. 去. 菜也. 說景宜也. 冥也. 今為暮字.
- 𦍋, 今作脅. 虛業反. 怯也. 於比也. 須.

4.6.3 今字와 古字를 같이 제시하여古今字 관계를 밝힌 예

- 𦍋 𦍋, 上古文𦍋, 今作阿字. 烏可反. 下乃可反. 柔弱兒. 亦草木盛也.
- 𦍋, 古作𦍋, 今作寬. 於元反. 上. 亦作統. 屈也. 枉也.
- 无無, 同字. 平. 非有也. 上古作, 下今作. 間也. 言也. 母字.
- 預, 古文作𦍋, 今作豫. 余據反. 安也. 先弁也. 入也. 開也. 脩也. 早也. 交也. 怠也.
- 𦍋, 古文𦍋二形, 今作𦍋, 又作𦍋. 食而反.
- 𦍋, 遺上古文, 今作𦍋, 徒木反. 相狎習謂之𦍋. 𦍋者志比止女.

5. 나오면서

이상 《新撰字鏡》의 주석 체례와 그것이 제시하는 자형정보의 실재를 알아보았다. 《新撰字鏡》의 저자 창주는 이 책이 독자의 한자 해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마음에서인지 다양한 자형을 수록하

고 각 자형간의 관계를 다양한 용어와 체례로 정리하였다. 실제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 번째 《新撰字鏡》은 책의 체례와 주석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면에서 字樣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新撰字鏡》이 가지고 있는 이체자 자료가 대단히 풍부하고 자형의 근거도 탄탄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新撰字鏡》의 用字 연구를 통해 이체 유형이나 자형의 근거 등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보겠지만, 부수를 정하고 귀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자 창주의 한자학적 소양이 그리 깊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 《說文解字新訂》, 北京:中華書局, 2002年
徐中舒 主編,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顧野王, 《原本玉篇殘卷》, 北京: 中華書局, 2004年
顏元孫, 《干祿字書》(《字典彙編》편위원회 편집, 《字典彙編》), 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年
陳廷敬·張玉書 지음, 王宏源 校, 《康熙字典》,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吳任臣, 《字彙補》,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年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張書巖 主編, 《異體字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7年
張 磊, 《新撰字鏡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年

〈中文提要〉

《新撰字鏡》為一部日本의 古辭書, 此書一本均保有有字書·韻書·類

書的特徵，於是具有非常獨特的體例。而且此書本身就是俗體的寶藏，因為作者會集了《玉篇》·《一切經音義》·《切韻》·《干祿字書》·《正命要錄》以及當時在日本文人的文獻力的漢字，並按照自己的原則類聚大量的異體字，附加適當的註釋。

《新撰字鏡》的體例受到《干祿字書》之類字樣書的影響，有關異體字均集中排列在一處當字頭，其下用‘形’‘形作’，‘同作’，‘同’；若干形同‘等’的術語，解釋其字形之間的關係，在下列了字釋和其他信息。“如茈苳，二形七矢反。上。生山，其味甚苦，人能食尔，古多。又云加乃尔介。”，”漚漚，三形作。正所牛反。平。”，”箠箠，三同。楚尤反。平。箠酒。或作替。”等。

第二個特徵就是，字頭之間活躍性相對來強，上下字頭緊緊聯繫的情況頗多。比如‘上’個字頭是正字，下面的字頭就是俗字，再下面的字就是其古文‘之類’的例子不難查到。更顯著的用‘上’‘上字’‘上同作’，‘上古文’等的定形術語來說明字頭間的關係。如：“年，奴田反。平。率季，二上同字。”，”河，故歌反。水名，出稽山；𣶒，上字。”，”蹠，除殄反。止也。履也。趁也；蹠，上正作。”，”諱，上字俗作。”，”曝，補木反。入。日乾也。曬；𣎵，上古文。”

最後就是在陳述的註釋裏面，提示字頭的不同屬性的異體字，如正字，俗字，古字，今字等。並且用‘上通下正’，‘上俗下正’等的格式闡明某字的正俗辨認。如：“譌，葛羅反。歌哥二字同。”，”蹠，祖到反。蹠蹠二形同。不安靜也。”，”譌，笱張流二反。平。狂也。相欺惑也。譌同作。”，”𣶒，鞞鞞鼓三形同作。徒刀反。跳如鼓而小，持其柄搖撻之者也。”，”防，坊字同。扶方反。備也。當也。”，”氣，亦作炁。去既反。去。鬱也。息也。”，”慇，亦作寢響二形。于劇魚祭二反。眠內不覺。妄言也。”，”■去玄反。麥莖也。稟也。或作稊。”，”𣶒，都礼反。又作觥。抵也。角觸也。”，”蹠，又作𣶒。蹠二形。”，”𣶒，躬字正字。”，”稍，所角反。鉞也。長一丈八尺。𣶒，上俗作。”，”叨，他榮吐高二反。平。食也。殘也。貪也。俗作饕。”，”𣶒𣶒，召，上俗作，二正作。”，”若苦，上通，下正。”，”蹠，上通作。”

關鍵詞：新撰字鏡 新撰字鏡註釋體例 異體字 正字 俗字
正作 通作 俗作

72 · 中國學 第45輯(2013.8)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